

◎ Present and Future of Mini-library.

마을文庫의 오늘과 내일

李 庸 男
(마을文庫本部 總務)

I. 머릿말

지난 7月末 現在로 마을文庫가 全國 3萬 農漁村 里洞에 설치되었다. 全國의 自然部落은 6萬이 넘으나 그중 35,000餘 行政里洞(洞長이 배치된 里洞)을 文庫設置 1次 對象으로 잡고 있는데, 나머지 5,000部落은 今年末까지 설치 완료할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끝났다.

1961年 1個로부터 始作된 마을文庫普及運動이 3年만에 일단 量的인 設置는 완료되는 셈이다.

方法上에 있어서 世界에서 볼 수 없는 우리나라 特有的 讀書施設, 한국적인 社會風土에서 民間團體의 社會運動으로 成功할 수 있으리라고 누구도 믿지 않던 마을文庫가 비록 하나 하나의 內容은 아직 미비하더라도 전국 곳곳에 씨앗이 뿌려졌음은 우리나라 圖書館 및 讀書界의 큰 慶事라 자부하고 싶다.

마을文庫가 시작된 背景을 훑어보고, 설치된 文庫의 現況, 그리고 量的인 設置完了 段階인 오늘의 시점에서 모색되는 文庫運動의 方向轉換 計劃을 概括的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讀書施設을 中心한 讀書運動

마을文庫 運動은 冊과 인연이 먼 民衆, 특히 農漁民을 對象으로 하는 것이다. 一般大衆이 전통적으로 冊과 인연이 먼 原因은 첫째로 讀書에 대한 價値觀이 前近代的이란 點과 둘째로 읽고 싶은 冊을 손쉽게 구해 읽을 수 있는 社會與件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點을 들 수 있다.

過去에는 冊이 觀念的이며 倫理的인 側面으로 지나치게 強調되어 實生活의 道具로 인식되지 못했고, 印刷의 機械化가 늦어 冊이 大衆化되지도 못했다. 近來에도 出版이 大形化된 장식용에 치중하고, 圖書館의 數나 利用習慣이 부족하여 일반대중이 冊과 쉽게 接觸할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대중이 冊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는 冊을 購讀토록 권장하거나, 讀書의 認識을 새롭게 鼓吹시키는 方法도 있으나, 우선 大衆 가까이에서 讀書施設을 마련해 주어 潛在讀者를 開發하는 것만이 가장 具體的이고 永續的인 讀書運動이라 믿어 1961년부터 農漁村에 마을文庫란 簡易 讀書施設 普及運動이 전개 되었다.

圖書館의 三大 構成要素인 「建物」「職員」「藏書」에 준해 마을文庫의 「冊藏」은 건물, 「讀書會」 조직은 직원 역할을 하도록 하여, 마을文庫 施設을 農漁村 마을 單位의 縮少形 圖書館 구실을 하게끔 지도하고 있다.

III. 마을文庫의 運營 現況

마을文庫가 3萬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 우선 밝혀둘 것은 지금 단계는 讀書의 不毛地에 讀書의 씨앗만을 뿌려놓은 상태라는 점이다. 씨가 發芽되어 뿌리를 내린 곳 보다는 아직 그렇지 못한 곳이 더 많은 것이 事實이다. 급속적으로 팽창된 量的인 증가에 비해 文庫의 藏書와 運營은 미처 이를 뒤따라지 못해온 實情이다.

어떻게 보면 質的인 育成보다 양적인 과시에 치중한다는 誤解를 받기도 하나, 이는 個人的이고 內面的인 讀書의 行爲를 全國的인 社會運動으로 전개 해나가기 위한 本會의 戰略에서 비롯된 것이다.

3萬 以上이나 되는 방대한 不毛地에서 讀書의 씨앗을 가꾸는 自體組織의 힘만으로는 力不足이다. 「政策」이란 레일 위에 이 事業을 올려놓고 「行政」의 힘으로 가꾸어 나가야만 가능한 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農漁村 行政里洞 單位로 設置를 끝내 文庫를 行政에 묶어두고 本會와 關係部處가 共同으로 이를 育成키 爲함이다.

이런 3萬 文庫設置를 계기로 文教部에서는 國民學校를 통해 全國文庫에 대한 實態調査를 실시하였다. 물론 文庫育成의 基本자료로서 해마다 문고의 實態를 조사해 왔으나 지금까지는 文庫 所在地, 代表, 會員數,

藏書數 정도밖에 조사치 못하였다. 이번 文敎部의 調查역시 완벽한 조사는 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보다는 그래도 具體的으로 조사된바 이 자료로서 現況分析에 참고하고자 한다.

1. 調查方法 및 內容

本調査는 지난 7月 文敎部에서 전국 國民學校 文庫擔當 指導教師로 하여금 직접 문고를 訪問 調查토록 하였다. 1972年末 現在 설치된 전체의 문고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는데 應答한 文庫는 總 22,431個 文庫에 達한다.

이번 實態調查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住所 및 代表者 변경 사항
- ② 文庫 備置 場所
- ③ 會員 構成 現況
- ④ 藏書 構成 現況
- ⑤ 年齡別 文庫利用 順位
- ⑥ 月別 文庫利用 順位
- ⑦ 文庫 利用 頻度
- ⑧ 文庫設置 對象地域 擴張에 대한 意見
- ⑨ 備置圖書 水準에 대한 意見
- ⑩ 育成을 위한 指導教師의 意見 등이다.

圖書의 文庫別 貸出數, 種類別 圖書 貸出 現況 등을 자세히 조사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현재의 文庫 實情으로는 圖書貸出 內譯을 정확히 장부에 기재한 文庫가 얼마되지 않아 이것을 조사한다면 거짓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것은 標本調查를 하기로 하여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調查結果의 處理方法은 擔當教師의 文庫單位조사서를 각 教育廳에서 收合, 集計하고 다시 市道 教育委員會에서 各部의 조사서를 綜合한 후, 文敎部에서 全國的인 統計를 集計하였다.

2. 文庫備置場所

마을文庫 冊藏을 비치하고 관리하는 장소는 讀書會長 집이 41%로 가장 높고 마을회관이 두번째, 다음은 里洞事務所로 나타나 있다.

장 소	마을회관	독서회관	이·등 사무소	회원집	기 타	계
문고수	6,525	9,188	3,821	2,197	700	22,431
비 율	29%	41%	17%	10%	3%	100%

3. 藏書現況

문고 소유 장서는 文庫當 평균 75권으로 나타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單行本이 59%, 定期刊行物이 41%이며, 책의 內容別로는 農漁業部門이 34%로 가장

많은을 알 수 있다.

	형 태 별		분 야 별					계	
	단행 본	잡지	계	농업	교양	문학	아동		기타
문고수	990,883	1,689,807	1,680,690	565,678	314,955	244,459	166,019	138,579	1,680,690
비 율	59%	41%	100%	34%	19%	14%	10%	23%	100%

문고설치 당초 약 15권의 基本圖書로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개개의 문고들이 量的으로는 어느정도 증가된 셈이지만 잡지의 비중을 생각할 때 所藏圖書의 내용은 매우 빈약한 편이다.

4. 利用頻度

문고 利用頻度 조사에 있어서는 실제 貸出圖書에 근거한 숫자로 조사하지 못하고 部落民의 전체적인 이용 상황을 참고하여 담당교사가 상, 중, 하로 판단 기재 하였고.

결과는 利用頻度가 높은 문고가 3,291個 文庫로 전체의 14.7%, 보통인 문고가 11,267개로 50.2%, 낮은 문고가 7,873개로 35.1%를 나타내어 전체문고의 1/3에 해당하는 문고가 활용이 부진함을 보여주고 있다.

5. 所藏圖書의 수준

현재 비치하고 있는 도서 정도로 만족하다는 의견이 2,033개 문고로 전체의 9%에 불과하고, 농어민의 교육 수준에 맞도록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20,398개 문고로 전체의 91%나 된다.

현재 備置하고 있는 도서들이 평균 국민학교 졸업 정도의 농어민에게는 水準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農業技術分野 圖書가 장서 구성의 중심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도서보다 딱딱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특히 이 분야의 책이 농어민들에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文庫育成에 대한 의견

문고육성을 위한 담당지도교사의 의견을 해당 문고 단위로 2가지씩 提示하도록 하여 이를 같은 유형별로 모아 순서대로 집계하였다.

그 결과 1위부터 3위까지가 실제 생활에 직결될 수 있는 실용적인 도서와 農漁民 水準에 알맞는 도서를 보급하여 문고장서의 질적인 向上을 圖謀해야겠다는 등 장서 확충에 대한 의견으로 종합되어었다.

4번째의 의견으로 나타난 것이 문고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겠다는 내용이고, 다음으로 女性들을 위한 도서의 배려, 自然部落 單位의 文庫設置 요망, 不實文庫의 通合 등이 제시되고 있다.

N. 마을문고 운동의 方向轉換

문고설치의 1차적인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둔 현실계에 있어 이상과 같은 實態分析 결과는 어느정도 당초부터 예견해 오던 것이었다.

이제 마을문고운동은 새로운 局面에 접어들어 既設置文庫의 指導育成을 위해 전면적인 方向轉換을 할 시점에 다달았다.

본 調査에 나타난 問題點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에 대한 對策과 종합적인 文庫育成 計劃은 어떠한가 알아본다

1. 마을문고의 문제점

1) 도서의 不足

잡지를 포함한 장서가 평균 75권에 不過하여 부락민 전체가 활용하기는 너무나 貧弱한 형편이다.

2) 文庫 利用頻度の 低調

전통적인 독서습관의 부족, 독서 기피의 사회풍조와 함께 읽을만한 책의 부족으로 인해 기인되는 현상이라 본다.

3) 指導者의 결핍

농촌 청장년층의 都市進出, 離農現象, 그리고 마을 문고 지도자들에 대한 獨自的인 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바 讀書運動의 지도자 양성이 시급히 요망된다.

4) 마을문고 地方組織 未備

현재의 地方組織은 1개 道委員會, 16개 郡協議會, 70개 面協議會에 불과하고 그나마 組織의 힘이 매우 약한곳이 많다.

2. 指導育成 對策

1) 새마을 叢書 刊行普及

文書設置가 일단 끝나는 내년부터의 본회의 중점사업이다. 새마을 총서의 내용은 주로 農漁業 生産技術 圖書를 중심으로 하고 實際生活과 直結되는 生活圖書 얼마간을 逐年적으로 간행할 계획이다.

말할것도없이 마을문고 藏書의 質과 量을 늘리기 위해서는 농어민에 알맞는 수준의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 廉價로 보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出版界의 입장으로서 농촌의 購買力이 낮아 농촌의 低邊讀者層을 대상으로 하여 단행본을 간행해서는 打算이 맞지 않는 형편이다.

현재 출판되어 있는 많은 훌륭한 농업기술도서만 하더라도 국민학교 졸업 정도의 수준으로 讀書習慣이 없는 농어민에게는 잘 읽히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소수 독자층에게만 읽히고 있는 실정이다. 現地 문고를 巡廻指導하다 보면, 소설 아동도서 등 쉽고 재미있는 책은 다 떨어져 있는데 농업기술도서는 대부분 깨끗한 것이다.

이에 본회에서는 국민학교 졸업수준의 저면 독서층에게도 농업기술도서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初步的인 농업기술 入門書로서 「새마을 叢書」를 간행하려는 것이다. 각 권의 내용은 재미있는 삽화가 1/3을 차지하고 附錄으로는 市中에 나와있는 그 분야의 전 농업책의 書誌事項, 目次를 수록하고 자세한 解題를 붙여줌으로써 좀더 수준높은 技術書로 인도하려 하고있다.

우선 금년에 15種 發刊, 보급하고 내년에는 25種, 그리고 앞으로 逐年적으로 계속하여 文庫藏書를 늘리고 質을 높일 계획이다.

2) 문고지도자 교육

文庫 指導者교육은 위낙 대상이 방대하고, 현재의 농촌 실정으로는 교육에 필요한 旅費, 宿泊費 등을 모두 本會에서 부담해야만 하기 때문에 소수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年 1回 밖에 갖지 못하고 있다. 74년도에는 道單位로 巡廻教育을 실시하여 전체 郡指導者와 示範面 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마칠 계획이다.

3) 地方組織 強化

지금까지는 소수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3만 문고가 點組織으로 분산되어 있으나 도단위 委員會, 군단위, 면단위 協議會를 조직 강화하느로서 자율적인 자체조직의 基盤을 다지고 문고육성책이 강력히 침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 새마을 教育의 據點으로 육성

마을문고는 文教部의 3개 「새마을 교육사업」의 하나로, 정부의 36개 「새마을사업」의 하나로 채택되어 있다. 각 국민학교에서는 담당 지도교사를 배치, 새마을 교육의 部落單位 據點으로 문고를 육성토록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각 교육청과 국민학교에 管內 文庫單位 카드를 비치케하여 수시로 현황을 파악 지도하느로서 형식적이며 행정적인 지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實質的이며 強力한 指導가 이루어지도록 할 計劃이다.

V. 結 論

1970年 「유네스코 東京 出版센터」에서 아시아 지역의 出版開發에 공헌할 목적으로 出版 및 圖書館 關係 專門家로 편성한 使節團이 아시아 17個國을 조사한 후 출판한 報告書 「아시아의 出版文化」에 마을文庫에 대한 재미난 分析이 실려있다.

“韓國에서는 單一民族이 單一言語를 사용하고 國語 解讀率도 70% 以上으로서 開發途上國에서 흔히 말할듯이 文盲이 많기때문에 冊 읽는 사람이 적다는 이유는 韓國에서만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讀書習慣의 不足에 있다”고 前提하고, “마을文庫는 一見 미미한 運動같이 보이지만 讀書習慣을 養成하는데 극히 귀중한

(8면에 繼續)

내지 損失圖書에 대한 책임감에서 가독이나 빈약한 장서를 가지고 적극적인 讀書誘致에 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讀書人口 誘致를 위한 P.R을 各種 社會團體 各級機關 및 매스콤을 통하여 實効있게 行하도록 持續的인 期間을 設定하고 예산의 浬받침을 하도록 制度化한다. 따라서 P.R의 內容은 讀書에 대한 興味誘發을 實際적으로 刺戟시키도록 할 것이며 실제 生活에서 讀書의 有益성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실감있게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6. 結 語

以上으로 讀書運動에 對한 現況과 診斷을 하고 그 改善策을 提示하여 보았으나 讀書運動이란 課題는 全國民을 對象으로 한 生涯教育의 일환이라고 보아 이 運動의 成果는 持續的으로 관계당국과 圖書館人은 물론 一般國民의 不斷한 協力이 없이는 그 成果를 거두기엔 至難한 事業인 것이다. 한때 이러한 讀書運動의

(11面에서 繼續)

運動이고 無限한 可能性을 가지는 것”, 이라고 評價하고 있다.

「無限한 可能性」이란 그 時代狀況에 맞는 合理的인 制度와 効率的인 推進方法이 수반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次元에서 볼때 마을文庫는 궁극적으로 公共圖書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調整되고 育成되어야만 한다.

文庫設置가 일단락된 現狀에서 위와 같은 育成策에 의거 어느 정도 土臺가 잡히고, 1市·郡에 1個 公共圖書館이 設置되면 各 마을文庫는 그 지역사회 公共圖書館에 귀속되어 도서관이 管掌, 指導하고 公共圖書館의 最일선 組織으로 活用될 것이며, 또 그렇게 되므로서만이 公共圖書館의 機能이 地域社會 전체에 미치

必要性을 내세워 여러 讀書運動團體가 兩後所符격으로 생기어 讀書運動本然의 目的보다는 讀書라는 美名下에 商魂을 휘둘렀던 現實들을 감안할 때 좀더 凡國民的인 運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強力한 機構가 誕生하였으면 한다.

<參考文獻>

도서관 4293. 9月號
 人口센서스 보고서 1970
 東亞年鑑 1973
 讀書新聞 1972. 9. 10月號
 東亞日報 1973. 8. 3日字.
 Britanica Encyclopidia 1970
 도협월보 1973. 5月號
 出版文化 1971 “
 出版年鑑 1972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1961 1~2月.
 한국도서관통계연보 1972
 출판혁명 시애키크 펄
 세계통계연감 1970

는 결과가 되리라 믿는다.

아직은 郡單位 公共圖書館이 너무나 不足하고, 그나마 대부분이 自體 圖書館 유지에도 힘겨워 管內에 散在된 文庫에 대한 支援이 어려운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全南 康津郡立圖書館 등 몇곳의 앞선 公共圖書館에서는 일찍부터 마을文庫를 지역사회의 「서비스 스테이션」으로 活用·育成하고 있으며, 서울市立鍾路圖書館·京畿道立圖書館 등 몇몇 都市所在 圖書館에서는 「복·모빌」을 利用하여 인근 文庫들을 支援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特有의 圖書館網을 形成하는 훌륭한 試金石이 되리라 믿는다.

마을文庫는 그 지역사회의 公共圖書館과 긴밀한 유대를 맺음으로서만이 所期의 成果를 거둘 수 있는 바 일선 公共圖書館의 많은 關心과 協助가 기대되는 바이다.

始興郡立圖書館 安養市立으로 昇格

지난 1963年 7월에 設立 運營되어 오던 始興郡立圖書館이 市立圖書館으로 昇格되었다고 한다. 即 1973年 7月1日 政府의 行政區域 改稱에 따라 安養邑이 市로 昇格됨으로써 同 邑에 所在한 始興郡立圖書館이 安養市立圖書館으로 昇格 그 名稱이 變更되었다고 한다.

大邱市立圖書館 移轉計劃 確定

傳聞된 바에 의하던 大邱市立圖書館이 擴張 移轉될 豫定이라고 한다. 即 大邱市에서는 今般 大邱地方法院이 新築移轉(10月頃)함에 따라 同 法院廳舍를 市가 引受키로 하고, 8,000萬圓의 豫算을 드려 同 建物を 改築하고 또한 環境을 造成하여 大邱市立圖書館으로 活用하는 計劃을 確定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來年初에는 새로운 곳으로 移轉하여 開館케 될 것이라고 한다.

正司書資格取得을 위한 圖書館學 講習實施

國立中央圖書館에서는 正司書資格取得을 위한 圖書館學講習

을 實施한다고 한다. 이 講習會는 圖書館法 第17條5號 및 同 法施行令 第5條에 의하여 各級 圖書館의 準司書資格證 所持者를 對象으로 實施하는 것인데 講習期間은 1973年 9月17日부터 10月 17日까지(25日間)며 講習人員은 50名으로서 先着願으로 接受한다고 한다. 따라서 자세한 것은 國立中央圖書館 指導協力課에 問議를 要望하고 있다.

한국사회교육협회 임시총회

사단법인 한국사회교육협회에서는 지난 8월 25일 협회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가졌다고 한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정관을 개정하고 단체 명칭을 변경하였다. 총회의 회원 자격은 문교부에서 해마다 시행하는 사회교육유공자, 여성교육유공자, 청소년교육유공자 상 수상자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의무인사도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다고 한다. 앞으로 명칭은 한국사회교육협회(전 한국사회교육협의회)로 변경하고 회장은 嚴大燮(마을문교본부 총장)님이 유임되었다고 한다.